

광주·전남 2030 '코로나 한파'...취업자 2만명 ↓

광주 지난해 임금근로자 1만2천명 줄어...외환위기 후 최대 감소폭 전체 취업자 4년만에 감소...임대업·교육·서비스 등 대면 산업 타격

코로나19 한파에 지난해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30대 취업자 수가 무려 2만명 줄며 타격이 컸고, 광주 임금근로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광주 74만8000명·전남 97만4000명 등 17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광주는 2000명 줄고, 전남은 같았다.

광주·전남 취업자 수는 지난 2016년 1000명 줄어든 이후 6000명(2017년), 9000명(2018년), 1만3000명(2019년) 등 큰 폭으로 증가해왔지만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한 해 지역 취업자는 60대(광주 1만명·전남 1만4000명 ↑)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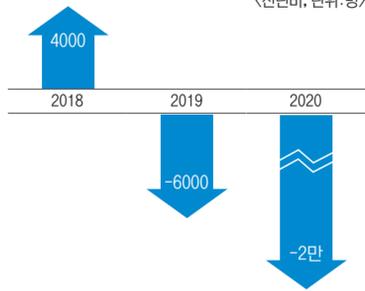
20~30대 취업자는 광주 1만1000명, 전남 9000명 등 무려 2만명이 감소했다.

광주 연령대별 취업자 감소 폭은 30대(-1만명), 40대(-2000명), 20대(-1000명), 10대(-1000명) 순으로 심했다. 전남은 30대와 50대에서 각각 6000명, 20대는 3000명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 3차 유행이 극성을 부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광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4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8.2%인데, 울산(10.8%)과 광주(10.7%)만 10%를 넘겼고, 부산(9.2%), 서울(9.1%), 경남(9.0%), 인천(8.5%), 경북(8.0%), 경기(7.9%), 대구(7.5%), 강원(7.4%), 충남(7.1%), 전북(6.8%), 충북(6.6%), 전남(6.5%), 제주(6.4%), 대전(5.3%), 세종(1.8%)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20~30대 취업자 증감 (전년대비, 단위:명)



임금근로자 수는 광주에서 1만2000명 줄어들며 외환위기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수는 광주 57만1000명·전남 60만3000명 등 11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감소 폭은 외환위기가 닦친 지난 1998년(-1만8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임금근로자 취업자의 경우 임시직(광주 -8000명·전남 -4000명)과 일용직(광주 -2000명·전남 -6000명)이 감소 폭을 키웠다.

광주·전남 비임금근로자는 9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자영업 수는 광주가 5000명 늘고, 전남은 2000명 줄었다.

광주·전남 취업난은 대면 업무 위주 산업에서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다.

임대업이나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부문을 포함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가 광주 5000명·전남 6000명 등 총 1만1000명 감소하며 타격이 컸다. 건설업(-6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광주에서 2000명 줄고, 전남에서 3000명 늘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취업자는 광주 3000명·전남 1만4000명 등 1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실업자 수는 광주 3만명·전남 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광주서는 1000명 증가하고 전남서 2000명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8.29 (+22.34)
↑ 코스닥	979.13 (+5.41)
↑ 금리 (국고채 3년)	0.979 (+0.003)
↓ 환율 (USD)	1095.10 (-4.80)

코스피 3거래일만에 상승

코스피가 13일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34포인트(0.71%) 오른 3148.2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1포인트(0.07%) 오른 3,128.26에서 출발해 등락하다가 상승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895억원, 1710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3746억원을 순매도하며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지속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41포인트(0.56%) 오른 979.13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42포인트(0.04%) 오른 974.14로 개장에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41억원, 246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83억원을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힘내세요! 전남 코로나 의료진

광주은행 '응원꾸러미' 전달 광주시에도 500상자 예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지난해에 이어 13일 전남도에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 50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송중욱 은행장은 13일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원꾸러미' 50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응원꾸러미'는 총 2500만원 상당으로 건강식품과 간식, 즉석식품, 추운 날씨를 대비하기 위한 핫팩과 핸드크림 등 총 16종류의 응원물품으로 구성됐다.

송중욱 은행장과 임직원 40여 명은 '응원꾸러미' 500상자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자처적으로 진행했다.



13일 송중욱(오른쪽 두번째) 광주은행장이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운데)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1분기도 그다지”... 광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부정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6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전망지수는 74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 2분기(54)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향목별로는 매출(79→71), 수익(85→72),

비용(86→80), 고용(88→86) 전망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부진'을 전망했다. 매출·수익은 코로나19 확산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비용은 매출 부진과 관리비용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고용전망 역시 근무시간 축소와 인원 감축, 퇴직자 미충원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부진'을 전망했다. 대형마트(55→55)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 기업형 피자·제과·제빵의 경쟁 심화 등으로 명절 특수에도 업황 부진을 전망했다. 편의점(75→59)도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절적 비수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를 어렵게 예상했다.

한편 백화점(125→100)은 기준치(100)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 분기보다는 25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년·명절 선물세트 및 동절기 고가제품 판매 등에도 내수 부진과 비대면·온라인 구매 확산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